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1.(화) 12:00
(지 면) 2026. 9. 2.(수) 조간

첨단 안전산업의 미래, 「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

- 12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박람회, 9.2.~9.4.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
- ‘첨단기술의 융합, 안전의 미래’ 주제로 340개 기업·기관, 920개 부스 운영
- 해외 바이어 101개사와 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등 기업 판로지원 집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9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2015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박람회다.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사흘간 798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져 3,514억 원 규모의 계약이 추진됐으며, 3만 9,854명이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박람회는 ‘첨단 기술의 융합, 안전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340개 기업·기관이 참여(총 920부스)하여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 중심의 최신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관은 특별전시관과 일반전시관으로 구성된다. 특별전시관에는 인공지능(AI)·로봇·드론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첨단재난안전산업관’(131개사 256부스)과, 일본·중국·독일 등 9개국 22개사가 참여하는 ‘글로벌기업존’(28부스)으로 구성된다.

주요 전시품목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도시 침수 예측 플랫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소방용 안전점검 로봇(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실내 점검용 초소형 드론(리베라웨어) 등이 있다.

일반전시관은 자연재난, 생활안전, 치안, 화재, 산업안전, 교통·해양안전 6개 분야 전용관으로 구성되며, 지역 재난안전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부산·대전·울산·경남 등 공공부문 전시관도 운영된다.

전시관 내 ‘안전체험존’에서는 끼임·감전 등 안전사고 체험과 심폐소생술 실습과 산업안전·안전운전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이동형 안전체험차량(현대자동차)과 차량 전복사고 체험 시설(한국도로공사)을 운영한다.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해 해외바이어 100개사, 국내바이어 83개사를 초청해 박람회 참가 기업과 1:1 맞춤형 수출·구매상담을 진행한다.

‘글로벌 재난안전 비즈니스 포럼’에는 아세안(ASEAN) 사무차장,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장 등 국제기구 인사, 캄보디아 등 각국 정부 관계자, 글로벌 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재난안전 정책 방향과 국제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 ‘국제방재협력세미나’ 등 42개의 학술·전문 컨퍼런스를 통해 최신 정책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윤호중 장관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재난의 양상이 날로 복잡화되는 지금,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적 가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할 산업”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기업의 성장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 안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경훈 (044-205-4180)
		담당자	사무관	남기범 (044-205-4185)



□ 박람회 개요 ※ 2015년 최초 개최, 금년이 12회차

- 기간: '26. 9. 2.(수)~9. 4.(금) / 장소: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 주제: 첨단 기술의 융합, 안전의 미래
- 규모: 340개 기업·기관, 920개 부스
- 주요 내용: ▲우수 재난안전 기술·제품 전시, ▲수출 상담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등 컨퍼런스

□ 박람회 주요 내용

- 우수 재난안전 기술·제품 전시
 - 특별전시관: AI,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제품 중심의 '첨단재난 안전산업존', 일본·중국·독일 등 해외기업 '글로벌기업존' 운영
 - 일반전시관: 자연재난 등 6개 분야별* 전시관 운영
- * ①침수·지진 등 자연재난, ②생활안전, ③치안, ④화재, ⑤산업안전, ⑥교통·해양안전
- 글로벌 재난안전 비즈니스 포럼(9.2. 14:00~17:00, 벡스코 컨벤션홀 205호)
 - 국제기구·외국정부, 글로벌기업 CEO 등 초청 강연, AI 등 첨단 기술 관련 전문가 토론 및 바이어·기업 등 소통
- 비즈니스 프로그램
 - 해외수출상담회: 참가기업과 해외바이어 1:1 맞춤형 수출상담·계약 지원
 - 국내구매상담회: 참가기업과 지방정부·대기업·공공기관 매칭, 계약 지원
- 부대 행사
 - 컨퍼런스: 국제방재협력세미나(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국내외 최신 정보, 동향 및 발전 방안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 체험존: 교통·화재·지진 등 VR 기반 이동형 안전체험차량(현대차), 차량 전복사고 체험 시설(한국도로공사) 운영